

<수요예배 간증-2>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 - 주사랑

2009년 10월 12일 새벽 2시 15분경

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주관대로 주님 앞에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그 의를 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를 쌓을 수 있을 때 쌓아야 한다.
진정 너희와 내가 무엇으로 만날 것이냐.
너의 값은 무엇이나. 의의 값이도다.
그러나 그 의도 쌓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야.
지금이야 기회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의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때 나를 바라봐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게 상달되지 않도다.
가장 큰 의를 알아?
높이 너의 의를 쌓아 드높이고 싶지 않더냐?
사랑의 의를 쌓아라. 그 사랑의 의가 제일 크도다. 나는 너를 사랑하도다.
진정 사랑해. 그러하기에 너에게 갔다. 그러하기에 너를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의를 쌓기 원하느냐. 환난을 면하려고? 재림을 맞으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그래서 전도하고 관리하느냐?
내가 애타게 너를 부르짖는 이유부터 깨달아라. 왜 너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전도하느냐?
나는 사랑하기에 그리하고 있다. 사랑의 반석 위에 올라 사랑의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내 신부들로 가득 채우라. 가장 큰 의도다. 의를 쌓아 의인되어라. 내가 섭리사를 축복한다. 안녕.

<수요예배 간증-3>

섭리사에게_나와 만나자 - 주사랑

2009년 10월 5일 주님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싶으신데 저희가 그 마음을 알아드리지 못하니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섭리사야. 진정 나의 마음을 아느냐.
진정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 아느냐.
너는 모른다. 진정 모른다.

너희가 안다면 절대, 절대 그리하고 있지만은 아니할 것이야.

섭리사 정말 너희 열심히 하고 나를 만나려 하고 있다. 고맙다. 고맙구나.

그런데 진정 나와 만나는 자는 적다.

선생의 눈물어린 호소를 말씀 속에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적구나. 나의 사랑들이여. 사랑이라는 단어에 무더졌느냐.

그런데 나는, 나의마음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엔 그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구나. 사랑한다. 진정 사랑한다. 무어라 표현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주고 너도 사랑해줄 것이냐. 진정 사랑하도다.

내가 나의 것인 너희를 사랑하지, 왜 안 사랑하냐.

사랑하니 저 지옥으로 가는 너희 가지 말라 막고 십자가 고통도 견뎌주지, 아니면 왜 견뎌 주냐.

나는 십자가의 이 길이 쉬운 줄 아느냐.

나도 너희와 같은 인격체라 하지 않았더냐.

나도 이 길이 정~말 못 견디게 괴롭고 아프도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왜냐고? 사랑하니 까.

나는 다른 자가 아니고 바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 길을 스스로 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을 가는 나를 보고 아버지 뒤에서 숨어 눈물 흘리신다.

내가 정녕 그 마음을 아느냐. 진정 아느냐. 모른다. 진정 모른다.

섭리사도 모른다.

내가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제발 나의 사랑을 믿어다오.

나 전지전능한 예수의 말을 믿어다오.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너를 향해 뻗은 내 손을 잡아다오.

우리 사랑하자. 내가 너부터 구원시켜야지.

아니면 섭리사 구원받을 자 너무 적을 것 같다.

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빠져라.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의논하자. 나와 사랑하자.

선생이 이 모든 것 말씀으로 써 보내었으니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내 뻗은 두 손 잡아주고

내 품에 안겨 주리라 믿는다.

명절이 뭐 별거더냐.

나와 사는 사람이 나의 명절이 중요하지 않더냐.

세상에 갔다가 부모에게 갔다가 먼지 붙은 것

금세 털어버려라. 털면 없어지는 것이다.

빨리 털어내고 나 주 예수만을 붙들여라.

사랑한다면 붙들여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붙들고 있다.

사랑하고 사랑하도다.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사랑한다. 안녕.